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8년 9월 10일
(월요일)

강북신문 5면

◆구의회 발언대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용균 의원

“공석으로 인한 업무공백 심히 우려된다”

3일 열린 제21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용균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구청장 비서실장의 공석을 지적하며 “주요보직을 장기간 비워둘 경우 업무 공백이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발언은 현재, 강북구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구청장 비서실장이 공석인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이 의원은 “앞만 보고 달려도 바쁜 이 상황에 강북구 주요 보직의 오랜 공석으로 조직운영 및 강북구의 주요 역점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1997년부터 설립되어 한해 예산 186억여원 규모로 강북구의 주차사업 및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문화정보도서관 등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공기업으로써 공단의 정책 방향과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자리인 이사장이 2018년 3월부터 6개월 여간 공석인 상태라는 것이다.

또 비서실장은 구청장 행사보조 및 수행, 구청장 지시사항 처리, 비서실 업무관



이용균 의원

리, 각종 민원안내 및 처리를 총괄하는 자리이나 작년 11월경 사직 후 현재까지 공석인 상태인 점을 밝혔다.

특히, 단체장에 대한 정부 및 대외관계 보좌, 전문 분야의 정책 판단을 위한 자문 등 역할 수행하거나 특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관, 기획관 직위로서 전문 임기제 제도도 운영할 수 있으나 강북구는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좋은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을 능동적으로 진행하고 순리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을 뜻한다”라며 “이러한 중요한 자리와 좋은 제도를 두고 활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명하며 찾아서 일하는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고심이 필요한 때”라고 강한 뒤 새로이 출범한 민선 7기 역점사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들은 반드시 능력 있는 인재들로 충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북일보 4면

5분 자유발언

“공석인 강북구의 주요보직 충원 빨리 해야”

이 용 균 의원

(더불어민주당/삼양동,삼각산동,송천동)



▲ 이용균 의원.

이용균 의원은 9월 3일 열린 제21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비서실장 자리가 공석으로 있다. 앞만 보고 달려도 바쁜 이 상황에 강북구 주요 보직이 오랜 공석으로 조직운영 및 강북구의 주요 역점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1997년부터 설립되어 한해 예산 186억여 원 규모로 강북구의 주차사업 및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문화정보도서관 등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강북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공기업으로써 공단의 정책 방향과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자리인 이사장이 2018년

3월부터 6개월 여간 공석인 상태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비서실장은 구청장행사보조 및 수행, 구청장 지시사항 처리, 비서실 업무관리, 각종 민원안내 및 처리를 총괄하는 자리이나 작년 11월경 북부신문에 보도된 불미스러운 사건과 관련하여 사직 후 현재까지 공석인 상태이다. 또한, 단체장에 대한 정부 및 대외관계 보좌, 전문 분야의 정책 판단을 위한 자문 등 역할 수행하거나 특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관, 기획관 직위로서 전

문 임기제 제도도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 강북구에서는 활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인사가 만사다”는 말이 있다며 좋은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을 능동적으로 진행하고 순리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해당 보직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굳이 충원할 필요도 없을 것이지만, 이러한 중요한 자리와 좋은 제도를 두고 활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명했다.

이용균 의원은 주어진 일만하는 강북구가 아닌 찾아서 일하는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의 고심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하면서 집행부에서는 해당 보직의 조속한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신규 충원이 더딘 사유와 향후 충원 일정에 대하여 속 시원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5분발언〉

이용균, “공단 이사장, 비서실장 공석 유지 문제있다”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비서실장 중요보직임에도 장기간 공석



▲ 5분발언 중인 이용균 구의원.

강북구 주요 보직의 오랜 공석으로 조직운영 및 강북구의 주요 역점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 된다. 현재, 강북구에서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비서실장 자리를 공석으로 유지하고 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1997년부터

설립되어 한해 예산 186억여원 규모로 강북구의 주차사업 및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문화정보도서관 등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공기업으로써 공단의 정책 방향과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자리인 이사장이 2018년 3월부터 6개월 여간 공석인 상태다.

비서실장은 구청장행사보조 및 수행, 구청장 지시사항 처리, 비서실 업무관리, 각종 민원안내 및 처리를 총괄하는 자리이나 작년 11월경 북부신문에 보도된 불미스러운 사건과 관련하여 사직 후 현재까지 공석인 상태다.

또한, 단체장에 대한 정무 및 대외관계 보좌, 전문 분야의 정책 판단을 위한 자문 등 역할 수행하거나 특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관, 기획관 직위로서 전문임기제 제도도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강북구에서는 활용하고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인사가 만사다”는 말이 있다. 좋은 인

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을 능동적으로 진행하고 순리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해당 보직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굳이 충원할 필요도 없을 것.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자리와 좋은 제도를 두고 활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명한다. 주어진 일만하는 강북구가 아닌 찾아서 일하는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의 고심이 필요한 때다.

지난 7월 1일자로 새로이 출범한 박점수 구청장의 민선 7기 역점사업들에 대해 성공적인 구청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들은 반드시 능력 있는 인재들로 충원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간 빈자리로 방치될 경우 업무 공백이 심히 우려된다.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해당 보직의 조속한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신규 충원이 더딘 사유와 향후 충원 일정에 대하여 속 시원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서울포스트 4면

강북구의회 이용균 의원 5분 자유발언

강북구 주요보직 공석 관련 채용 계획은?



지난 3일 제21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용균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다선거구)이 ‘강북구 주요보직 공석 관련 채용 계획’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1997년부터 설립되어 한해 예산 186억여원 규모로 강북구의 주차사업 및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문화정보도서관 등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공기업으로써 공단의 정책 방향과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자리인 이사장이 2018년 3월부터 6개월 여간 공석인 상태이며 비서실장은 구청장행사보조 및 수행, 구청장 지시사항 처리, 비서실 업무관리, 각종 민원안내 및 처리를 총괄하는 자리이나 작년 11월경 불미스러운 사건과 관련하여 사직 후 현재까지 공석이다.

이에 이 의원은 “주요보직을 장기간 비워둘 경우 업무 공백이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지난 7월 1일자로 새로이 출범

한 박점수 구청장의 민선 7기 역점사업들에 대해 성공적인 구청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들은 반드시 능력 있는 인재들로 충원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해서 신규 충원이 더딘 사유와 향후 충원 일정에 대하여 밝혀달라고 했다.

또 단체장에 대한 정무 및 대외관계 보좌, 전문 분야의 정책 판단을 위한 자문 등 역할 수행하거나 특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관, 기획관 직위로서 전문임기제 제도도 운영할 수 있으나 강북구는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좋은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을 능동적으로 진행하고 순리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을 뜻한다”라며 “이러한 중요한 자리와 좋은 제도를 두고 활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명하며 찾아서 일하는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고심이 필요한 때”라고 강한 뒤 새로이 출범한 민선 7기 역점사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들은 반드시 능력 있는 인재들로 충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북구의회 이용균 의원, 5분 자유발언

“주요보직을 장기간 비워둘 경우 업무 공백이 심히 우려된다”



심히 우려된다”고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이용균 의원의 발언은 현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과 구청장 비서실장 공석인 상황을 밝힌

강북구의회 이용균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지난 3일 열린 제21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구청장 비서실장의 공석을 지적하며 “주요보직을 장기간 비워둘 경우 업무 공백이

가운데 이에 이용균 의원은 “앞만 보고 달려도 바쁜 이 상황에 강북구 주요 보직의 오랜 공석으로 조직운영 및 강북구의 주요 역점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1997년부터 설립되어 한해 예산 186억 여원 규모로 강북구의 주차사업 및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문화정보도서관 등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공기업으로써 공단의 정책 방향과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자리인 이사장이 2018년 3월부터 6개월 여간 공석인 상태라는 것이다.

또 비서실장은 구청장 행사보조 및 수행, 구청장 지시사항 처리, 비서실 업무관리, 각종 민원안내 및 처리를 총괄하는 자리이나 작년 11월경 사직 후 현재까지 공석인 상태인 점을 밝혔다.

특히, 단체장에 대한 정무 및

대외관계 보좌, 전문 분야의 정책 판단을 위한 자문 등 역할 수행하거나 특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 정책관, 기획관 직위로서 전문임기제 제도도 운영할 수 있으나 강북구는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끝으로 이용균 의원은 “이러한 중요한 자리와 좋은 제도를 두고 활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명하며 찾아서 일하는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고심이 필요한 때이다”며 “새로이 출범한 민선 7기 역점사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들은 반드시 능력 있는 인재들로 충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영일 기자